차　례

제1과

《훌륭한 학생이 되세요》



제2과

정중히 인사드려요



제3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제4과

입안을 깨끗하게



제5과

머리를 곱게 빗자요



제6과

학교에 갈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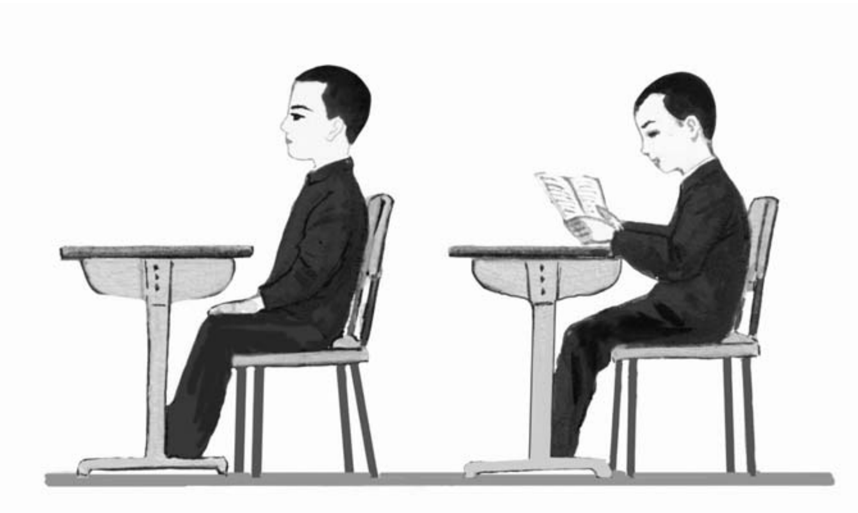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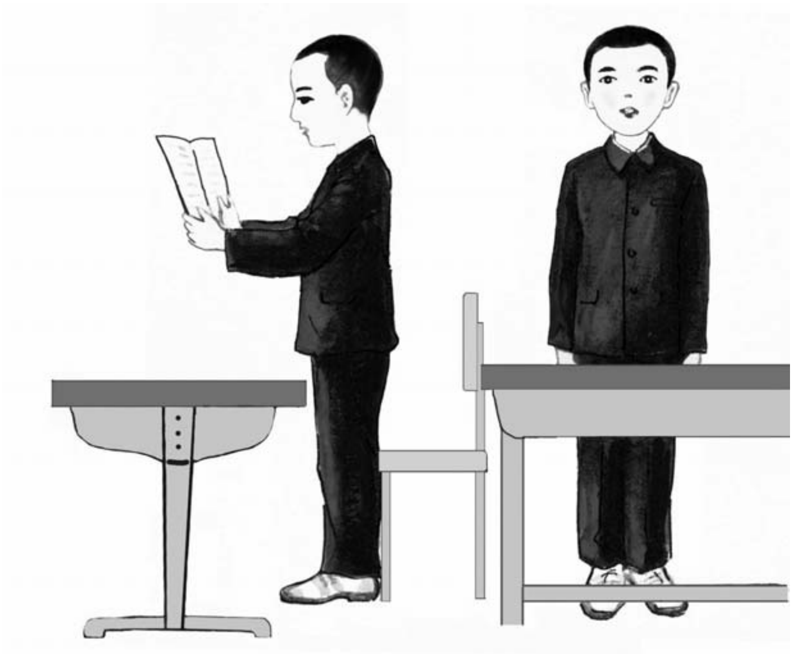
제7과

공부시간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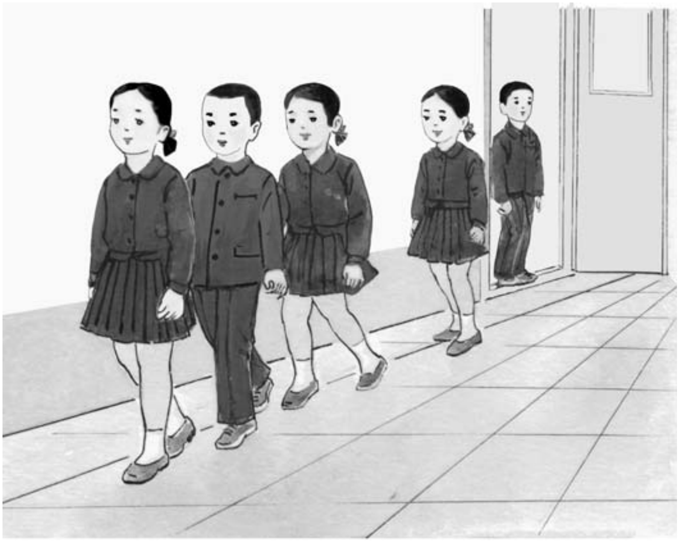






제8과

쉬는 시간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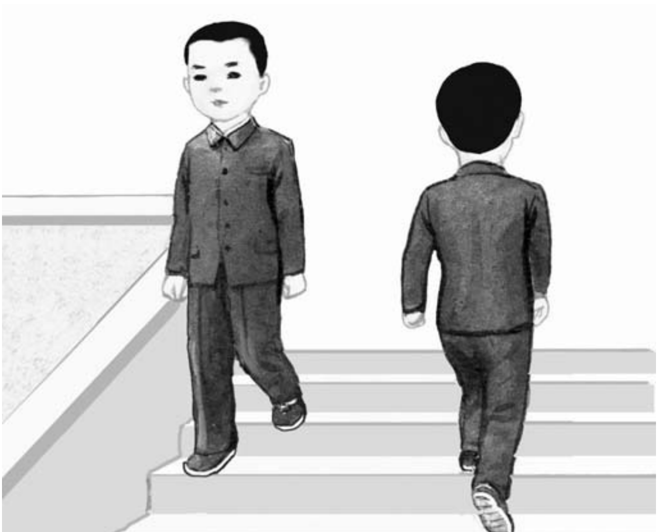




제9과

복도와 계단에서





제10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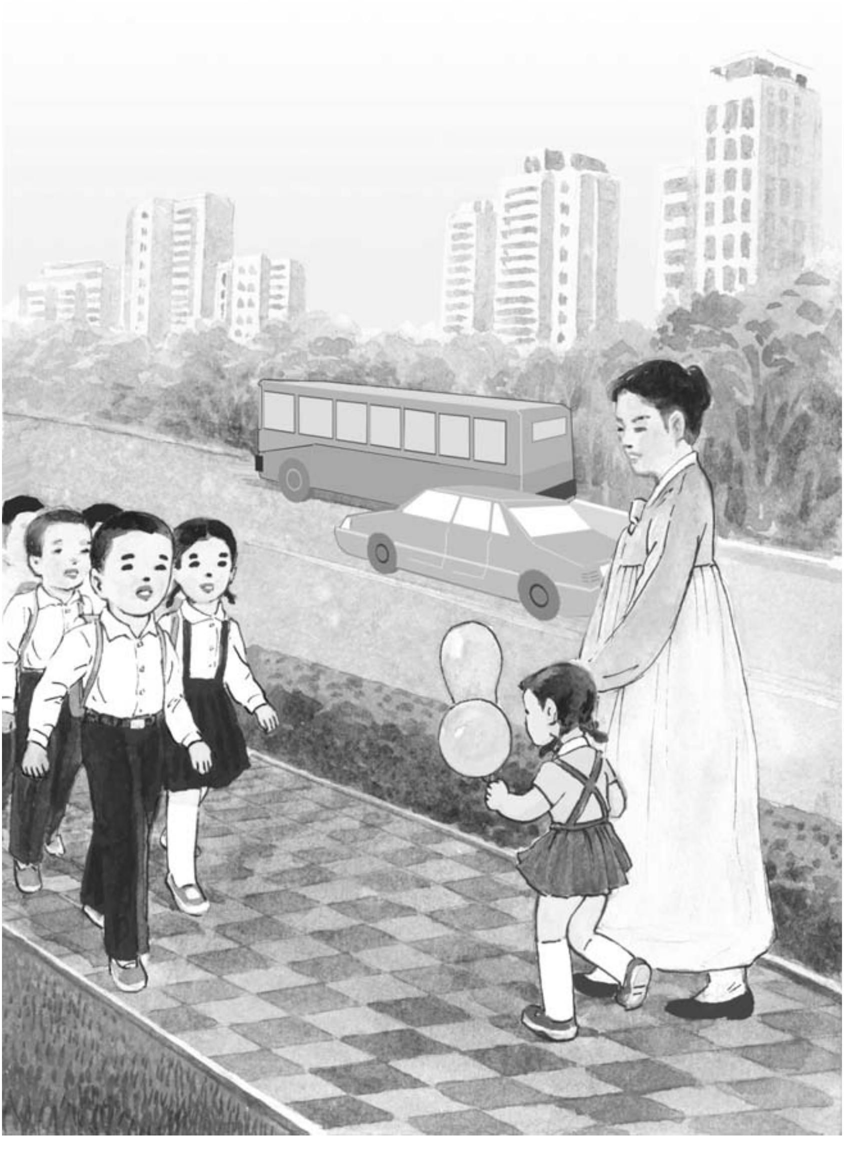
줄을 설 때





제11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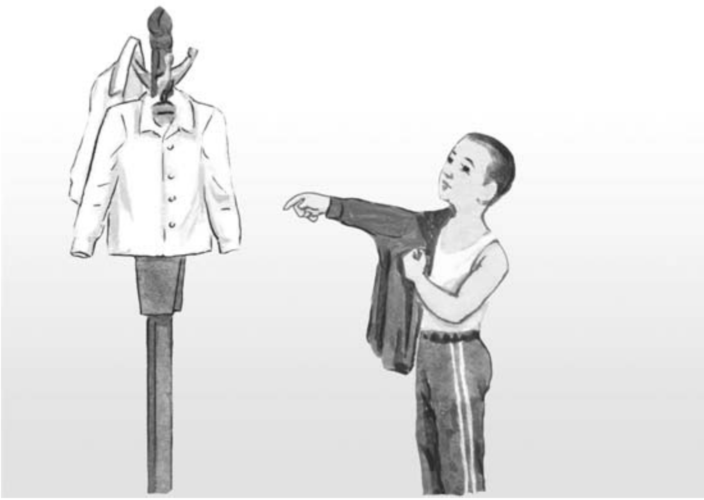
오른쪽으로 다녀요



제12과

집에 돌아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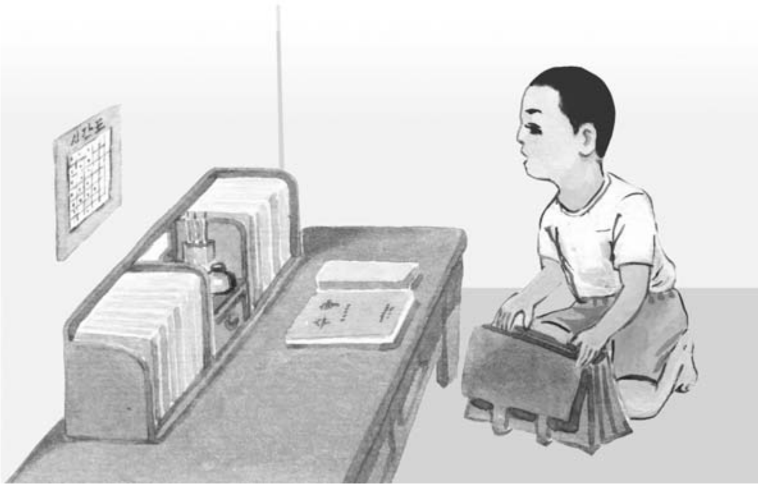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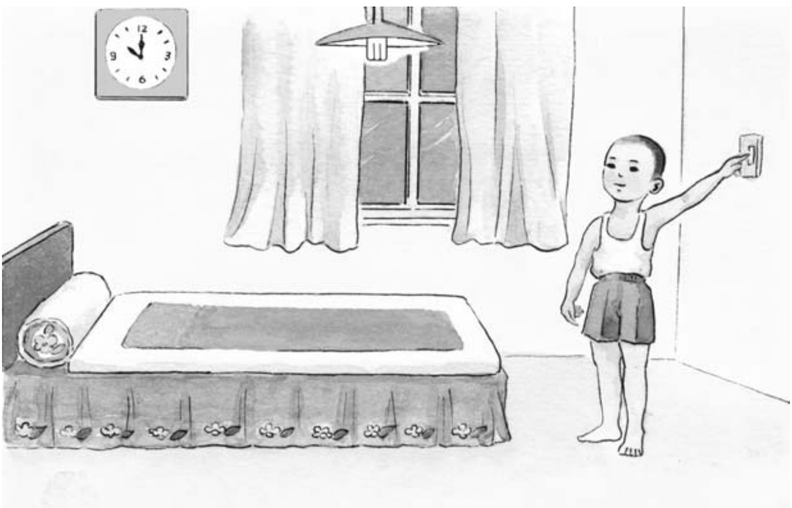
제13과

잠자기 전에









제14과

백두산장군들을 모신 자랑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은 백두산장군들이십니다.

백두산장군들을 모시여 우리 나라가 위대합니다.




天下第一名將 김일성 대장 만세
白頭山으 抗日女장수 萬方에 자랑하자
朝鮮아 자랑하라 白頭에 光明星

제15과

부모를 도와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공부도 잘하여야 하지만 일도 할줄 알아야 합니다.》



순희는 공부도 잘하지만 부모를 도와 일도 할줄 안답니다.

순희가 토끼에게 풀을 주었습니다.

꽃밭에 물도 주었습니다.

할머니가 칭찬하시였습니다.

《순희가 용쿠나.》

제16과

빨간 수지연필

(야! 빨간 수지연필, 내것보다 좋구나.

내가 가질가? 아니야, 그러면 안돼.)



다시 생각해 보니 철이는 부끄러웠습니다.
(잃은 동무는 얼마나 안타까울가!)





《선생님, 얻은것입니다.》
《철이는 정말 착한 학생이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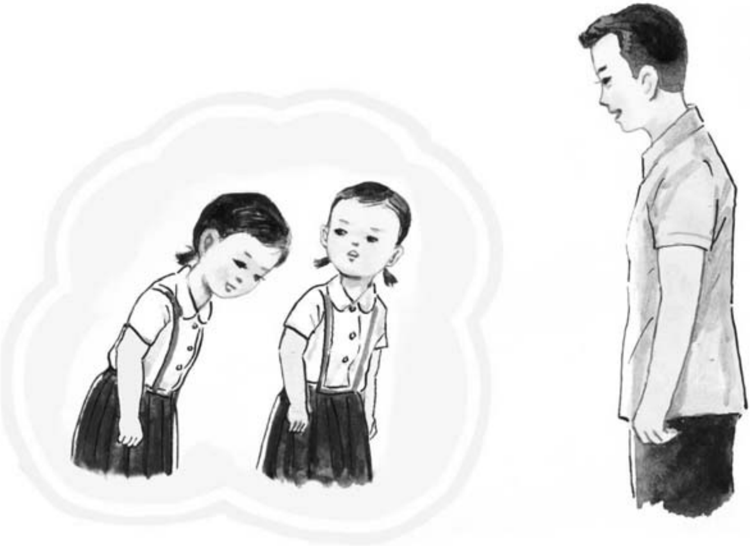
제17과

선생님을 만나면

봉숙이와 남숙이가 아침 일찍 학교에 나왔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얘, 다른 반 선생님에게도 인사를
해야 하니?》



(아침에도 인사했는데 또 하나?)

봉숙이는 다른 반 선생님에게도 인사를 하고 아침에 만났던 선생님에게도 다시 인사를 하였습니다.

제18과

일당백인민군대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인민군대를 무으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인민군대를 제일 강한 군대로 키워주시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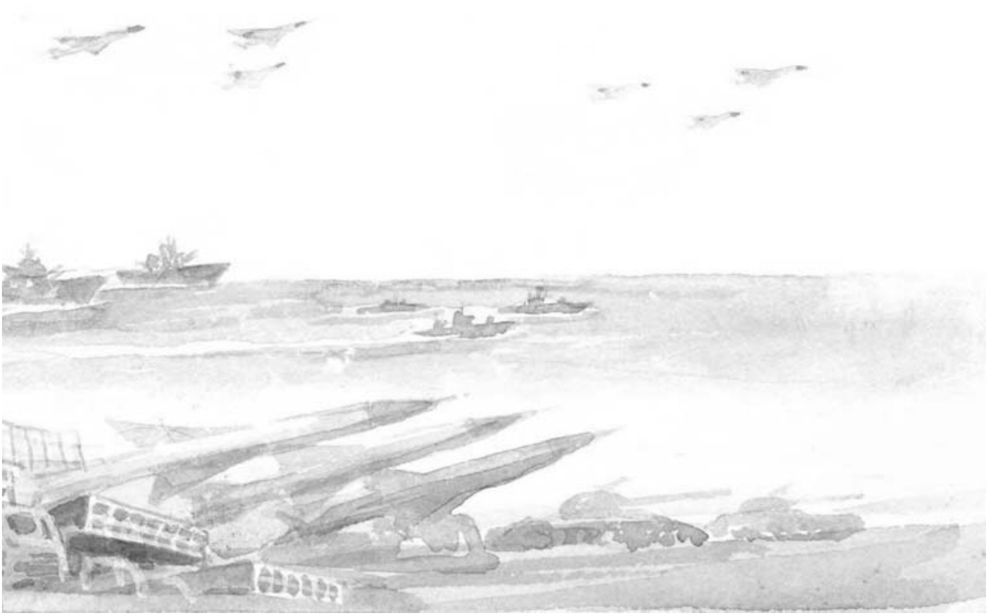


오늘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인민군대를 이끄십니다.

인민군대는 일당백장수군대입니다.

우리 인민군대가 세상에서 제일입니다.

우리들도 씩씩하게 자라서 인민군대가 되겠습니다.



제19과

밥을 먹을 때

우리들은 밥을 먹을 때도 좋은 습관을 붙여야 합니다.

정희가 동생 정남이에게 밥을 먹는 방법을 하나하나 알려줍니다.

《정남아, 밥을 먹을 때는 밥상앞에



똑바로 앉아야 한다고 했지. 숟가락은 꼭 오른손에 쥐고 먹어야 해. 숟가락을 쥘 때는 이렇게 하고…》



《누나, 저가락을 쥘 때에는 숟가락을 어떻게 해야 하나?》

《정남아, 저가락을 쥘 때에는 숟가락을 국그릇에 놓고 쥐여야 해. 그리고 숟가락을 쥐였을 때에는 저가락을 상우에 놓아야 해.》

제20과

귀중한 책상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학생들은 나라의 재산을 아끼고 사랑하여야 합니다.》

봄이네 반 동무들은 책상을 알뜰히 거둡니다.

언제나 잘 닦아 알른알른합니다.

그런데 국진이는 슬그머니 걱정스러웠습니다.

(혹시 다른 반 동무들의 책상과 바뀌면 어쩌나?)

그래서 책상에 자기 이름을 새기려했습니다.

봄이가 타일렀습니다.

《국진아, 오늘은 이 책상에서 우

리가 공부하지만 이담엔 동생들이 공부하게 돼. 그러니 자그마한 흠집도 내서는 안돼.》

(봄이의 말이 옳아. 내가 왜 그걸 생각 못했을가?)

국진이는 자기의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철송이가 책상을 끌어 옮기려고 하였습니다.

순간 봄이가 얼른 다가와 책상을 마주 들었습니다.



《아차, 빨리 하려는 생각에 그만 …》
철송이는 자기의 행동을 돌이켜보았습니다.
(하마트면 나라의 귀중한 재산을 못 쓰게 만들번 했구나.)
봄이의 모범을 따라 동무들은 책상을 더 귀중히 다루었습니다.

제21과

위생실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제정된 질서와 규률을 지키는것은 집단생활의 초보적인 요구입니다.》
학생들은 위생실리용질서를 잘 지켜야 합니다.

위생실은 자기 혼자 쓰는것이 아니라 많은 학생들이 함께 리용합니다.

위생실리용질서를 잘 지키지 않으면 다른 동무들의 기분을 흐리게 합니다.

학생들은 공부에 방해되지 않도록 쉬는 시간에 위생실을 리용하여야 합니다.

남학생은 남자위생실을, 녀학생은 녀자위생실을 리용하여야 합니다.

위생실에 가면 먼저 문을 《똑똑똑》 세번 가볍게 두드린 다음 대답이 없을 때 열어야 합니다. 손기척도 없이 문을 벌컥 열면 안됩니다.

위생실을 깨끗하게 리용하여야 합니다.

위생실의 문과 벽, 바닥을 어지럽히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위생실에서는 말이나 노래, 장난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더우기 문이나

벽에 글을 쓰는 일이 절대로 없어야 합니다.

학생들은 모두 위생실리용질서를 잘 알고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제22과

곧바로 집에 가자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거리에서 어린 학생들이 장난을 하거나 교통질서를 위반하면 잘 타일러주어야 합니다.》

매미가 맴맴 우는 무더운 여름이였습니다.

공부를 끝낸 금동이네 반 동무들은 집으로 오고있었습니다.

큰 길가의 꽃밭들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활짝 피여있었습니다. 나비들도 팔랑거리고 잠자리들도 맴돌았습니다.

《쉿! 조용해.》

금동이가 손가락을 입에 가져다대더니 살금살금 꽃잎우에 앉은 잠자리를 잡으러 다가갔습니다.

《야! 잡았다.》

금동이를 따라 너도나도 잠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잡힐듯말듯 하는 잠자리를 따라 시간가는줄 몰랐습니다.

이때 지나가시던 할머니가 타일렀습니다.

《애들아, 집에서 기다리겠는데 길가에서 장난하지 말고 어서 집으로 가거라.》

《알겠어요.》

《애들아, 할머니말씀대로 빨리 집에 가자.》

금동이를 따라 동무들은 곧바로 집으로 갔습니다.



큰 길가에서 장난하며 노는것은 왜 나쁜 행동으로 될가요?

제23과

물음에 정확히 대답하자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학생들은 말도 겸손하고 례절바르게 하여야 합니다.》

학생들은 공부시간에 선생님의 물음에 정확히 대답하여야 합니다.

선생님이 이름을 부르면 학생은 큰소리로 《예!》 하고 대답하면서 일어서야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물음에 똑바로 서서 다 알아들을수 있게 똑똑히 말해야 합니다.



선생님의 물음

을 잘 듣지 않고있다가 아무말이나 하면 안됩니다.

말을 너무 빨리하거나 입안에서 웅얼거리지 말아야 합니다.

물음에 대답할 때는 마지막 맺는말까지 정확히 해야 합니다.

제24과

게사니의 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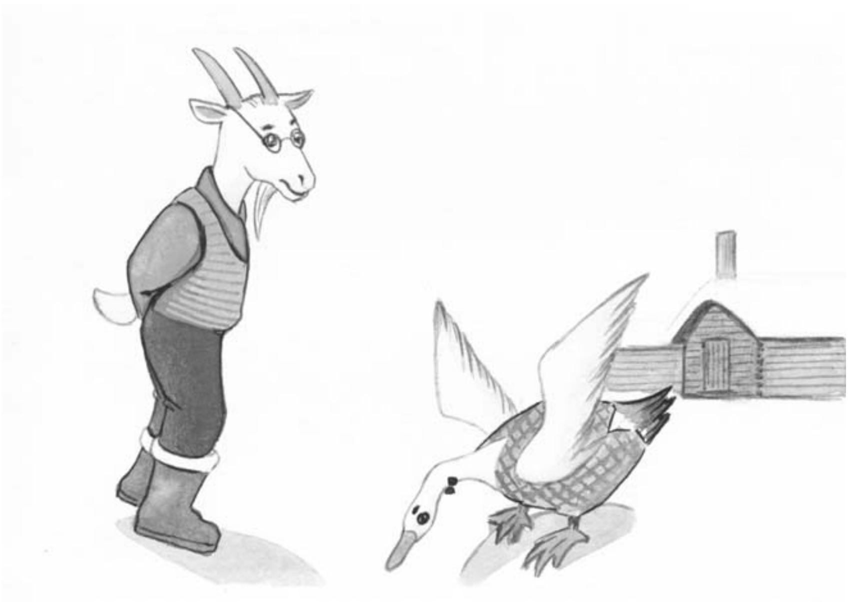
어느날이였습니다.

오리와 게사니가 뛰놀고있는데 염소할아버지가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오리는 얼른 옷차림을 바로하고 똑바로 서서 깍듯이 인사를 하였습니다.

《염소할아버지, 안녕하십니까?》

《오냐, 참 기특하구나.》



염소할아버지는 오리의 머리를 쓸어주며 칭찬했습니다.

염소할아버지가 지나가자 게사니는 눈이 올롱해서 오리에게 물었습니다.

《오리야, 넌 염소할아버지를 잘 아니?》

《아니, 그건 왜?》

《네가 인사를 하니 말이야.》

《꼭 알아야만 인사를 하니? 웃어

큰이니까 인사했지.》

게사니는 염소할아버지의 칭찬을 받은 오리가 몹시 부러웠습니다.

(나도 인사했으면 칭찬받을걸.)

멀어져가는 염소할아버지를 바라보던 게사니는 오리에게 《나도 인사하고 올래.》하고 말했습니다.



게사니는 염소할아버지를 뒤따라가 등뒤에 대고 《염소할아버지, 안녕하십니까?》하고 꾸벅 인사했습니다.

길을 가던 염소할아버지는 걸음을 멈추고 돌아섰습니다.

《 이녀석, 늙은이라고 놀리는거냐? 버릇없는 녀석!》

염소할아버지는 발을 탕탕 구르며 몹시 노여워했습니다.

혼쌀이 난 게사니는 오리에게 돌아와서 투덜거렸습니다.

《인사를 했다가 욕만 먹었다야.》

그 말에 오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인사는 만나자마자 꼭 앞에서 해야 해. 그런데 넌 늦게 하면서도 등뒤에 대고 하지 않았니? 염소할아버진 그래서 노하신거야.》

《체, 그래두 인사했으면 칭찬이야 해줘야지.》

게사니는 여전히 투덜거렸습니다.

《인사는 칭찬을 바라고 하는게 아니야, 그런 마음으로 인사를 하면 칭

찬은커녕 욕만 차례진단다.》

오리의 말에 게사니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제25과

웃사람들이 찾으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례절을 잘 지키는것은 사람들사이의 정을 두터이 하고 동지적단합을 이룩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어느날 저녁이였습니다.

선희는 동무들과 줄넘기놀이를 하고있었습니다.

《선희야!》

직장에서 돌아오던 어머니가 찾으시였습니다.

선희가 집으로 가려 하자 동무들은 조금만 더 놀자고 하였습니다.

《아니야, 어머니가 찾으시는데 빨리 가봐야 해.》

선희는 급히 집으로 뛰여가 어머니 앞에 똑바로 섰습니다.

《어머니, 절 찾으셨나요?》



《오냐, 오늘 숙제를 다 했니?》

당황해진 선희는 그만 얼굴이 빨개져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직 다 못했어요.》

《그런데 왜 놀기만 하느냐?》

(동무들이 찾아와서 조금만 놀고 숙제를 하려고 했는데…)

선희는 사실을 말하고싶었으나 아무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앞에서 대답질하는것은 나쁜 버릇이기때문입니다.

《어서 숙제를 다하고 놀아라.》

《예, 알았어요.》

선희는 어머니의 말씀대로 숙제를 다하였습니다.

제26과

얼굴과 손발을 깨끗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개인위생을 잘 지키지 않거나 생활을 되는대로 하는 동무들은 학습도 잘하지 못합니다.》

선남이는 언제나 몸을 깨끗이 거둔답니다.

오늘도 일찍 일어나 아침운동을 하고난 선남이는 세수를 하자고 동생을 깨웠습니다.

겨우 눈을 비비며 일어난 동생은 마지 못해 형을 따라 세면장으로 갔습니다.

《에, 춥다.》

동생은 찬물에 손을 대기가 싫은지

손에 물을 약간 묻혀 얼굴에 물칠만 대충 하고는 방으로 들어가려 하였습니다.

《유치원생이 그렇게 고양이세수를 하면 되니?》

선남이는 동생을 불러세우고 다시 세수를 깨끗이 하도록 하였습니다.

팔소매를 걷어올리고 먼저 손을 씻고 세수를 한 다음 발을 씻도록 하였습니다.



《어때, 이젠 춥지 않지?》

동생을 씻어주고난 선남이는 자기도 얼굴과 손발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즐거운 기분으로 아침밥을 먹은 선남이는 동무들과 방학숙제를 하였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밖에 놀러나갔던 동생이 들어왔습니다.

《형, 빨리 밥먹자.》

《응, 먼저 손을 깨끗이 씻고 먹자.》

《아침에 씻었는데 또 씻나?》

동생은 눈이 둥그래져서 형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럼, 손발은 아침과 저녁에만 씻는것이 아니라 일을 하거나 놀고난 다음에도 씻어야 한다. 위생실에 갔다왔을 때에는 손을 꼭 씻어야 한단다.》

동생은 그제야 알겠다는듯 세면장

으로 들어갔습니다.

선남이는 이렇게 동생도 몸을 깨끗이 거두도록 잘 돌봐줍니다.



생각해보자요

○ 세수를 하고있는 두 학생의 모습에서 잘못된 점이 무엇일가요?



◯ 아래의 그림을 보면서 이 학생이 어떤 좋은 일을 하고있는지 생각해보자요.



제27과

학용품을 정히 다루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학생은 연필을 비롯한 학용품을 귀중히 여기고 정히 써야 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진옥이는 책상에 마주앉았습니다.

수학문제를 한창 재미나게 풀고있는데 유치원에 다니는 동생 진성이가 들어왔습니다.

《나두 누나하고 같이 공부할테야.》

진성이는 제법 학습장과 필갑을 가지고 누나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엉?! 연필이 왜 다 부러졌니?》

필갑을 열던 진성이가 눈이 둥그래서 말했습니다.

진옥이가 넘겨다보니 글쎄 다섯자루나 되는 연필이 끼우개에는 하나도 끼워있지 않고 몽땅 부러져있었습니다.

《진성아, 연필은 언제나 연필끼우개에 끼워서 필갑안에 넣어야 해. 이렇게 망탕 넣고 가방을 휘두르며 오니까 연필이 다 부러지지?》

진옥이는 동생을 차근차근 타이르며 연필을 곱게 깎아 필갑안에 넣어주었습니다.

진성이는 연필을 꼭 쥐고 힘을 주



어 유치원에서 배운것을 한자두자 써 나갔습니다.

조금밖에 못 썼는데 연필이 뚝 부러졌습니다.

《글을 쓸 때 너무 힘을 주면 연필이 인차 부러진단다. 이렇게 쥐고 써야 해. 그리고 학습장에 글을 쓸 때 여기 썼다 저기 썼다 하지 말고 처음부터 빈자리를 내놓지 말고 차례차례 써야 해.》

진옥이는 동생에게 하나하나 알려주었습니다.

《알겠어. 나도 이제부터는 누나처럼 학용품을 정히 다루겠어.》

진성이는 새로운 마음을 다졌습니다.



◯ 교과서와 학습장에 망탕 글을 쓰거나 책장을 뜯어내지 말아야 합니다.

○ 수공가위와 수공칼은 써야 할 날에만 가지고 오며 옷주머니에 넣지 말고 책가방에 넣어가지고 다녀야 합니다.

제28과

남호의 생각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자신보다 먼저 동지를 생각하고 위해주며 동지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눌줄 알아야 합니다.》

어느날 하루공부가 끝난 뒤였습니다.

갑자기 검은 구름이 밀려오더니 소나기가 쏟아져내렸습니다.

집에 돌아가려던 남호와 성철이는 비가 멎기를 기다렸습니다.

이때 남호의 어머니가 비옷을 가지고 학교로 찾아오시였습니다.

《야! 비옷.》

남호는 비옷을 보고 너무 기뻐 어쩔줄을 몰라하였습니다.

《남호야, 어서 비옷을 입어라!》

어머니는 남호의 어깨우에 비옷을 씌워주시였습니다.

비옷을 입던 남호는 문득 성철이를 바라보며 생각하였습니다.

(나만 비옷을 입으면 성철이는 어떻게 할가?)

비맞으며 집으로 갈 성철이를 생각하니 남호는 가만 있을수 없었습니다.

성철이네 집은 남호네 집보다 더 멀리에 있었습니다.

남호는 비옷을 벗어 성철이에게 주었습니다.

《성철아, 이 비옷을 입어.》



《일없어, 네 비옷을 내가 입고가면 되니?》



《아니야, 난 어머니와 함께 우산을 쓰고가면 돼!》

그래도 성철이는 비옷을 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본 남호의 어머니가《내가 미처 성철이 생각을 못했구나. 성철아, 어서 비옷을 받아라!》하고 따뜻이 말씀하시였습니다.

남호는 끝내 성철이 어깨우에 비옷을 씌워주었습니다.

《남호야, 정말 고마와!》

성철이는 남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남호는 성철이를 바라보며 방긋 웃었습니다.

어머니는 다정한 두 동무를 정다운 눈길로 바라보았습니다.

제29과

악독한 지주놈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우리는 지주, 자본가들을 계속 미워해야 하며 그들을 반대하여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지난날 어느 마을에 악독한 지주놈이 있었습니다. 지주놈의 집에는 칠성이라는 어린 머슴이 살았습니다.

칠성이는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지주집일을 하였습니다.

지주놈은 칠성이를 소처럼 마구 부려먹으면서도 먹을것을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비가 온 날 저녁이였습니다.

지주놈은 칠성이보고 학교에 가서

제 아들놈을 업어오라고 호통쳤습니다.

어린 몸으로 자기보다 큰 지주 아들놈을 업고 진창길을 조심조심 오던 칠성이는 집앞에 다 와서 그만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지주 아들놈은 진창에 넘어졌다고 엉엉 울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지주놈이 달려나왔습니다.

《저놈이 날 우정 넘어뜨렸어!》

《뭐? 괘씸한 놈! 내 아들을 진흙탕에 넘어뜨려?》

지주놈은 일어서지도 못하는 칠성이를 마구 짓밟았습니다.

그러자 아들놈은 울음을 뚝 그치고 《히히, 거짓말이야, 저놈이 맥이 없으니까 미끄러져 넘어졌지 뭐.》하며 히물거렸습니다.

《그래?! 네가 크면 남을 꽤 부려먹겠구나.》

지주놈은 죄없는 칠성이를 사정없이 짓밟아주고도 뻔뻔스러운 소리를 하였습니다.

지주 아들놈은 부끄러운줄도 몰라하였습니다.

그날부터 칠성이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였습니다. 지주놈은 앓아누운 칠성이에게 먹을것을 하나도 주지



않았습니다. 칠성이에게 먹을것을 가져다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을러메였습니다.

불쌍한 칠성이를 생각해준것은 같이 머슴을 사는 사람들이였습니다.

어느날 밤 머슴어머니가 치마폭에 가마치 한줌을 싸쥐고 몰래 칠성이에게 왔습니다.

《칠성아, 가마치를 가져왔다. 이거라도 먹고 일어나렴!》

머슴어머니가 칠성이의 손에 가마치를 쥐여주며 따뜻이 말하였습니다.

이때 어두운 머슴방 문이 와락 열리며 지주놈이 뛰여들었습니다.

《네 이년, 감히 내 눈을 속여? 네놈들 다 죽어봐라!》

화가 독같이 난 지주놈은 몽둥이로 마구 내리쳤습니다.

칠성이와 머슴어머니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이처럼 지주놈은 악독합니다.

악독한 지주놈은 오늘 남쪽땅에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지주놈을 없애기 위하여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제30과

건늠길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건늠길이 아닌데로 건너다니거나 뻐스리용질서를 어기고 앞질러다는것과 같은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일요일이였습니다.

인남이는 동생 인수와 함께 유희장에 가려고 거리에 나섰습니다.

이때 건너편 정류소에 뻐스가 와서 멎었습니다.

《형, 빨리! 저기 뻐스가 왔어.》

인수는 형의 손을 잡아당기며 아무데로나 건너가려고 하였습니다.

《인수야, 여긴 건늠길이 아니야, 길을 건늘 땐 꼭 건늠길로 다녀야 한다는걸 잊었니?》

인남이는 덤벼치는 동생을 타일렀습니다.

얼마쯤 걸으니 흰줄표식을 한 건늠길이 나타났습니다.

《여기가 건늠길이야.》

형이 말했습니다.

《형, 빨리 건너가자.》

인수는 옆을 살피지도 않고 건늠길에 들어서려고 하였습니다.

인남이는 동생의 걸음을 멈춰세웠습니다.



《인수야, 건늠길에 들어설 땐 길 왼쪽부터 잘 살펴보아야 해.》

이때 길 왼쪽에서 승용차 한대가 달려오고있었습니다.

《형, 승용차!》

《그것 보렴, 살펴보지 않았다면 어쩔번 했니. 차에 치울번 했지?》

빨간 승용차는 물매미처럼 미끄러져 지나갔습니다. 그러자 인수는 형

님에게 또다시 말했습니다.

《형, 이젠 빨리 건너가자!》

《가만 있어, 저 건너편에 있는 신호등을 보렴. 아직 빨간 불이 켜져있지 않니?》

정말 빨간 불이 위험하다는 신호를 하였습니다.

《건늠길을 건늘 때에는 꼭 신호등을 보아야 한단다. 신호등이 없는 곳에서는 교통보안원이 가리키는대로 해야 돼.》

인남이는 차근차근 이야기해주었습니다.

이윽고 신호등에 파란 불이 켜졌습니다.

《야! 파란 불!》

《됐다, 이젠 건너가자.》

인남이는 동생의 손목을 잡고 길을 건너 뻐스정류소로 갔습니다.

제31과

서로 힘을 합치면

어느 한 산기슭에 큰 돌배나무 한 그루가 서있었습니다.

돌배나무에는 누렇게 익은 돌배가 주렁주렁 달려있었습니다.

먹을것을 찾아헤매던 산돼지, 사슴, 노루, 토끼들이 돌배나무를 보고 모여들었습니다.

《야, 돌배다!》

《돌배를 따먹자.》

산돼지, 사슴, 노루, 토끼들은 저마다 돌배나무에 껑충껑충 뛰여올랐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돌배를 딸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돌배를 딸수 있을

가?…)

돌배나무를 올려다보며 생각하던 토끼가 무릎을 탁 치며 말했습니다.

《좋은 수가 있어. 우리 서로 힘을 합쳐 돌배를 따는것이 어때?》

《그것 참 신통한 생각이야.》

《정말 그게 좋겠어.》

사슴과 노루는 토끼가 좋은 생각을 했다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나 힘센 산돼지만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함께 따면 돌배를 나누어먹어야 할테지.)

산돼지는 머리를 흔들며 말하였습니다.

《난 싫다. 혼자 따서 나만 먹을테야!》

산돼지는 막대기를 들고 훌쩍 뛰여올랐습니다.

그러나 돌배를 따지 못하고 매번 궁둥방아만 찧었습니다.



사슴, 노루, 토끼들은 셋이 힘을 합쳐 돌배를 따기로 하였습니다.

맨아래는 키가 크고 힘이 센 사슴

이 서고 사슴의 잔등우에 노루가 올라섰습니다.



노루의 잔등우에는 토끼가 올랐습니다.

이렇게 하니 높은 가지에 매달린 돌배도 모조리 딸수 있었습니다.

사슴, 노루, 토끼들은 잠간사이에 먹음직한 돌배를 수북이 따놓고 흐뭇해하였습니다.

욕심부리던 산돼지는 한알도 따지 못해 어깨가 처지고 부끄러웠습니다.

(나도 힘을 합쳤더라면 돌배를 땄을걸.)

산돼지는 그제야 자기 잘못을 깊이 뉘우쳤습니다.

제32과

동무들과 친절하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례의도덕을 잘 지키는것은 사람들사이의 관계를 깊이하고 집단의 단합과 화목을 이룩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신혁이가 다음날 학습준비를 끝내였을 때였습니다. 밖에서 찾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고 내다보니 한쪽 어깨에 멋진 썰매를 멘 복남이가 서있었습니다.

《복남동무로구나. 어서 들어와.》

《아니 일없어. 넌 썰매타러 가는걸 잊었니?》

《정말, …좀 기다려.》

썰매를 찾아 어깨에 멘 신혁이는 복남이와 함께 얼음판으로 향했습니다.

얼음판에서는 썰매를 타며 웃고 떠들고있는 신혁이네 반 동무들이 있었습니다.

신혁이와 복남이를 보자 동무들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우리들은 너희들을 기다렸어.》

《우리가 좀 늦어 미안해.》

신혁이와 복남이도 동무들과 함께 썰매를 재미나게 탔습니다.



어느새 해가 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젠 그만 놀고 집으로 가자.》

《그래, 그래.》

신혁이네 반 동무들은 썰매를 거두어가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갈림길에 이른 그들은 다정히 인사를 주고받았습니다.

《복남동무, 잘 가.》

《응, 래일 또 만나자.》

친절하게 나누는 인사는 그들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해주었습니다.



알아두자요

동무를 찾을 때는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별명을 지어 부르는것은 동무를 깔보는 나쁜 버릇입니다.

제33과

승냥이 미국놈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수많은 조선사람들을 야수적인 방법으로 무참히 학살한 승냥이들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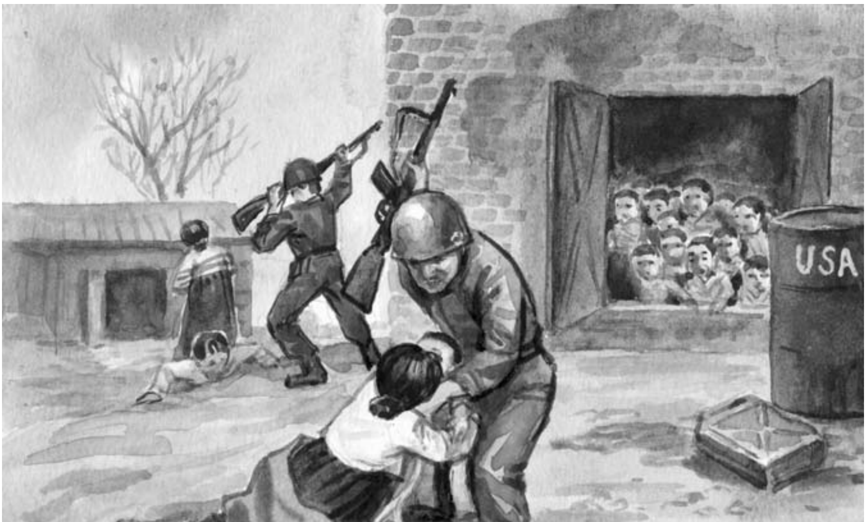
지난 조국해방전쟁때의 이야기입니다.

용수가 살고있는 마을에 미국놈들이 기여들었습니다. 미국놈들은 마을사람들을 마구 죽이고 붙잡아갔습니다.

나어린 용수도 애기어머니들과 함께 놈들에게 붙잡혀 창고에 갇혔습니다.

어느날 창고에 나타난 미제우두머리놈은 어머니의 품에 안겨 젖을 먹는 갓난애기들을 보고 지껄이였습니다.

《당장 어머니와 아이들을 갈라내여 따로따로 가두라! 그래서 어머니는 아이들을 찾다가 애가 타서 죽게



하고 아이들은 어머니를 찾다가 간이 말라죽게 하라!》

미국놈들은 어머니의 품에서 아이들을 빼앗아 다른 창고에 따로 가두었습니다.

아이들은 작은 손을 내저으며 엄마를 애타게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미국놈들은 어린 아이들을 말리워 죽이려고 물 한모금 주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배가 고프고 목이 타서 하나둘 쓰러졌습니다.

《물, 물, 물…》

애타게 물을 찾는 아이들에게 미국놈들은 휘발유를 주었습니다.

휘발유를 물로 알고 먹은 아이들은 가슴이 타서 무리로 쓰러졌습니다.



미국놈들은 숨져가는 아이들을 보며 좋다고 너털웃음을 쳤습니다. 숨지는 어린 아이들을 보고 좋다고 하는 미국놈들은 사람이 아니라 승냥이들이였습니다.

인민군대아저씨들이 승냥이 미국놈들을 족치러 달려왔습니다.

바빠맞은 미제승냥이놈들은 창고에 총탄을 퍼붓고 불을 질렀습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죽었습니다.

용수는 인민군대아저씨들에 의하여 구원되였습니다.



그후 용수는 억세게 자라나 승냥이 미국놈들을 때려부시는 인민군대가 되여 총을 굳게 잡았습니다.

우리는 승냥이 미국놈들과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사회주의도덕(소학교 제1학년용)

3 판

집 필 후보원사 교수 박사 김완선, 정순애

심 사 심의위원회

장 정 류명심

편 집 황옥별

그 림 리선규

콤퓨터편성 황옥별

교 정 한순희

낸 곳 교육도서출판사

인쇄소 교육도서인쇄공장

2판발행 주체98(2009)년 11월 24일

3판발행 주체101(2012)년 2월 21일

교—12-보-595

값 15원